

■ 오늘은 제1회 '입양의 날'

# “한울이는 우리 가족에 큰 선물입니다”

첫 기념식서 개회 선언하는  
광주 치평초 두한울군 가족

“저는 가족이 있어 너무나 좋 습니다. 입양은 우리에게 가족이라 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.”  
광주 치평초등학교 4학년 두한울 (11)군은 1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코엑스 센터에서 열리는 '제1 회 입양의 날' 기념식에서 개회 선 언을 한다. 그런 한울이를 바라보는 아빠 진영(47)씨와 엄마 장은실 (46)씨의 얼굴엔 미소가 떠날 줄 모 른다.

개구쟁이로 소문나 있을 만큼 건강 하고 명랑하다. 입양에 대해서도 망 설이지 않고 이야기한다.  
“친구한테 제가 입양됐다고 하니 까 안 믿어요”라며 배시시 웃는 한 울이. 고민은 없을까? “의사가 왜 서 필리핀 선교하시는 아빠를 따라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성 적이 그리 좋진 않아요”

## 5살때 공개입양 '막둥이' 덕분에 집안에 웃음꽃

어머니 정씨는 한울이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거나 지나치게 조심스 럽게 키우지 않는다고 말한다. “입 양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말해주고 있어요. 입양은 한울이 잘못도, 한 울이를 낳아준 엄마의 잘못도 아니 라구요.”  
부부가 걱정하는 것은 한울이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입양이라는 사실에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다.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때도 많은 대화와 애정으로 해결



한울이네 가족이 단란한 저녁 한때를 보내고 있다. 왼쪽부터 형 한길, 엄마, 한울, 누나 한나, 아빠 진영씨. /최현백기자 choi@kwangju.co.kr

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.  
“한울이는 누나(한나·20)와 형 (한길·18)을 잘 따르는 우리 '막내' 입니다.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입양 됐다는 이유만으로 한울이를 안쓰 럽게 여기거나 조심스러워 합니다.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입양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다는 방증이 겠죠. 앞으로 입양가족이 더욱 확대 돼 입양아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일 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”  
/곽선정기자 ksj@kwangju.co.kro

## 복지부, 입양가정에 월 10만원 지급

내년부터 아동 입양 가정에 대해 매달 1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. 양육비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주어진다.  
복지부는 10일 입양 장려금 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하고, 취학 전에 유치원이나 보 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매달 15

만~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.  
복지부는 특히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이 2.24% 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, 장애아 입양시 매 달 지급하는 양육비(52만 5천 원)를 매년 10% 정도 늘려 주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  
/곽선정기자 ksj@kwangju.co.kr

## 첨단산단 '과학연구단지' 지정

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

광주첨단산업단지가 과학연구단 지로 지정됐다.  
과학기술부는 현재 지방과학연구 단지 육성사업으로 지원중인 광주 북 구·광산구 첨단과학산단, 충북 오창 과학단지, 전북 완주과학단지 등 3 곳 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 단지로 공식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.  
이에 따라 광주 첨단산단내 기관들 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 고, 대덕특구 등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와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

열리게 됐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.  
이번 과학연구단지에 대해서는 '지 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'에 따라 5 년간 150억원의 한도에서 정부가 연 구개발비를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 가 전체 사업비의 50% 이상을 부담 토록 할 방침이다.  
광주시는 이에 따라 첨단산단내 테 크노파크에 가칭 '광주과학기술교류 협력센터'를 건립, 이곳에서 단지내 연구기관 교류 협력·외국 과학자 들의 연구시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 이다.  
/김주정기자 jnews@kwangju.co.kr

## 광주 실버타운조성사업 오늘 기공

광주시의 실버 타운 건립이 본격 화됐다. 고령화 사 회로의 급속한 이 동 추세에 발맞추 기 위해서다.



광주시는 우선 11일 노인복지와 문화·체육활동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실버타운조성 사업 기공식을 갖는다. 남구 노대동 592일대 12만4천평에 848억원을 들 여 조성하는 빛고을 실버타운은 2009 년까지 1·2단계로 나눠 완공된다.

1단계는 2008년까지 복지회관을 비롯 문화센터·종합체육센터·생활 체육공원을 조성될 예정이다. 2단계

로 2009년까지 골프장(9홀)과 골프 연습장, 실버주택(180가구)이 들어 선다.  
시는 이와 함께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북구 효령동과 생운동 일대 3만 평 부지에 연면적 1800평 규모의 '북 부실버타운'을 오는 2010년까지 조성 키로 했다.  
/김주정기자 jnews@kwangju.co.kr

## 대만 TSAM 시아오 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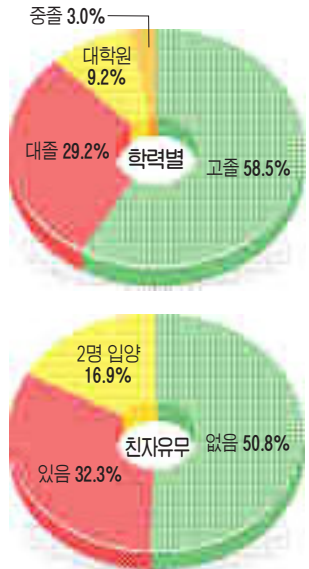
태양광 등 투자협의 來光



대만 최대의 전자및 반도체 생산업 체인 TSAM사의 테드 시아오(사진) 회장 일행이 12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협의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.  
시아오 회장은 이날 광주시와 평동

산단 태양광 모 들 전문업체인 심포니에너지 (주) 방문해 태양전지 광주 공장 설립 등에 대해 협의한다. 이날 방문에는 이재 방 주한 대만대표부 대표 등이 동행 한다.  
/김주정기자 jnews@kwangju.co.kr

## 2005년 광주 입양부모 조사(65명)



# 고졸·회사원 입양 비율 높아

〈학력별〉 〈직업별〉

## 사회복지회 광주지부 조사

고졸 학력의 평범한 회사원일 수 록 자녀를 입양하는 비율이 높은 것 으로 집계됐다. 또 입양·혼혈에 대 한 사회적 편견 완화의 시각에 따라 친척·주위에 입양 사실을 떳떳이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 났다.  
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가 지 난 2005년 자녀를 입양한 광주지역 부모 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

고졸 학력의 부모가 58.5%(38명) 로 가장 높았다.  
다음으로는 대졸이 29.2%(19 명), 대학원 9.2%(6명), 중학교 졸 업이 3.0%(2명)로 뒤를 이었다.  
직업별로는 ▲회사원 35.4%(23 명) ▲자영업 27.7%(18명) ▲복회 자 10.8%(7명) ▲공무원 9.2%(6 명) ▲농축산업 9.2%(6명) ▲기타 7.7%(5명) 순으로 나타났다.  
연령대에서는 30대가 52.3%(34 명)으로 높았지만 40대가 넘어 자

녀를 데려온 경우도 44.6%(29명) 나 됐다. 20대와 50대의 연령에서 자녀를 입양한 부모는 각각 1명이 었다.  
부리 깊은 혈통주의로 오랫동안 자리했던 입양에 대한 편견은 입양 을 강행한 대다수 부모에게 존재하 지 않았다. 65명 중 61.5%를 차지 하는 40명이 친척이나 주위에 입양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. 입양사 실을 비공개로 한 경우는 38.5%(25 명)이었다.

이들 가운데는 이미 자녀를 입양 해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을 더 입양하는 경우도 16.9%(11명) 나 됐다. 친자가 있지만 입양을 한 경우는 32.3%(21명), 자녀가 없어 입양을 택한 경우는 50.8%(33명) 이었다.  
한편 지난해 국내 입양 아동은 1 천461명이며, 해외입양은 2천101명 이었다. 광주·전남은 총 92명으로 전체의 6.4%를 차지했다. 광주의 경우 입양 전문기관으로는 '대한사 회복지회' '홀트아동복지회'가 있으 며, 입양시설로는 '광주영아일시보 호소'와 '광주형제사'가 운영 중이 다.  
/서민정기자 viola@kwangju.co.kr

## 생활안내

<p><b>교통안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-8114</li> <li>월도안내 1544-7788</li> <li>대안광명 222-2000</li> <li>아시아나항공 221-6300</li> <li>한국도로공사 1588-2505</li> </ul>	<p><b>가정법률상담소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건복지위원회상설법률상담소 671-4050</li> <li>광주 YWCA 527-0011</li> <li>24시간 청소년상담 1888</li> <li>국세청합법상담센터 1588-0060</li> <li>국세청 1588-0060</li> <li>법무민원상담 광주남평무형 1588-9090</li> <li>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-6133</li> <li>광주 YWCA 524-5400</li> <li>주무교실 232-0643-4</li> <li>복합소비자문제연구 369-9881</li> </ul>	<p><b>신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교폭력 국번없이 112</li> <li>전남경찰청 226-0112</li> <li>광주지검 233-2828</li> <li>사이버센터 021118</li> <li>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</li> <li>여자형사기동대 363-0155</li> <li>광주 여성의 전화 363-7739</li> <li>광주 남성의 전화 673-9001</li> <li>광주야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</li> <li>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</li> </ul>
---	---	---

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| 후지쯔코리아(주)에서 개발한  
**휴대폰 문자발송 자동프로그램**

한 번에 **1000개** 발송!

대만, 대만한국, 선거시행 최초로  
선거홍보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.

www.vote21.co.kr

광주·전남지사 관공예도품  
710-062-381-7700, 369-6000  
11:00~18:00 (평일) 01000

**태양광주택보증, 70% 무상보조 실시**

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무상 보조금 신청 접수, 신속순 마감

정부 무상보조 신청 순서

태양광 정부 무상지원 사업부

문의 전화: 10621 369-1800  
10611 242-7704